

# ‘해조류기업관’ 특산물 할인판매 호응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산업분야에 이용되는 해조류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완도군 제공〉

## 완도 해조류 박람회 11일 폐막...관람객 50만명 눈앞

### 맨손 고기잡이·갯벌 체험 등 막바지 이벤트 눈길

해조류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전시·연출·체험을 통해 보여주는 ‘2014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 폐막을 이틀 앞두고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며 50만명 유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해조류 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어린이 날인 5일 5만3522명이 입장해 일일 최대 방문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2만2059명이 입장하는 등 8일까지 누적 관람객 49만여명을 기록했다.

막바지에 이른 박람회장에서는 각종 이벤트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해조류 기업관’에서는 전남도와 시·군

11개 지자체 35개 업체가 지난 7일부터 해조류 제품과 수산 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해 호응을 얻고 있다. 박람회 관람객은 특산품별로 시중보다 20~3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주요 할인 품목은 무산 김과 돌미역, 삼다시마, 톳고추장, 톳젤리, 다시마란, 다시마 비누 등 20여 개에 달한다.

또한 부산시 가장군도 부스를 설치해 멸치액젓과 다시마 카라멜 등 해조류 제품과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조류박람회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맨손 고기잡이와 갯벌 체험행

사도 열린다.

완도대교 진입부에 위치한 완도군 군외면 달도마을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마을 테마공원 해변에서 맨손 고기잡이와 갯벌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달도마을 해변은 매년 봄이면 송어·농어·괭어 등 자연산 활어를 맨손으로 잡고 바지락 캐기, 게 집기 등 가족단위 체험행사를 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 찾는 곳이다.

맨손 고기잡이 체험 가족에게는 장갑과 물고기를 담아갈 망태기를 현장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장화와 호미는 본인이 준비하거나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맨손으로 잡은 고기는 즉석에서 시식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이 회를 떠준다.

참가비는 성인 1만원, 청소년 5000원이며 참가문의는 군외면사무소 개발담당

(061-550-6330)으로 하면 된다.

달도마을 해변에는 정유재란 당시 총무공 이순신 장군과 병사들이 물을 떠 마시고 설사병을 고쳤다는 ‘호남대장군 약샘’이 있고, 주변에는 완도 수목원과 드라마 ‘해신’ 촬영장 등 많은 관광지가 있다.

박람회조직위 김준혁 홍보팀장은 “관람객이 불비는 연휴가 끝난 7일부터는 훨씬 자유롭고 차분하게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고 대기시간이 없어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면서 “11일 폐막일 전까지 관람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바닷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를 주제로 지난달 11일 개장한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는 11일 한달 간의 대장정을 마칠 예정이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ichung@

## 전북 소식



장수풍뎅이를 관찰하는 어린이

## 순창군, 곤충산업 적극 육성

### 음식물 쓰레기 분해 등 활용

순창군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는 올해 ‘동애등애’를 이용한 자원재활용 사업과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곰팡이)을 활용한 곤충 자원화사업 등 2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애등애’의 경우 애벌레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 친환경적으로 분해된 음식물을 퇴비로 활용할 수 있고, 애

벌레는 사료로 활용하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군은 연말에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고부가가치 곤충산업의 대량사육 체제를 구축해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인류가 먹는 곤충은 1700여 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이 먹는 곤충은 매뚜기, 귀뚜라미, 나비와 나방 유충, 딱정벌레 애벌레 등으로 나타났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정읍 ‘동학혁명 기념제’ 11일 개최

### 황토현전적지...행사 축소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제47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11일 정읍 황토현전적지에서 개최된다.

이번 기념제는 당초 10~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전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11일 하루로 축소가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봉준 버스 ‘갑오의 꿈’이 눈길을 끈다. 현재의 사회적 문제를 점검하고, 1894년 갑오년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을 공동회의를 통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대상 시상식, 무명 동학농민군 위령제를 비롯해 전도교에서 주관하는 동학혁명 황토현 전승 기념식도 진행된다.

／정읍=백기섭기자 parkks@

## ‘순천 시립 향림실버빌’ A등급 요양기관 선정

(최우수)

### 보건복지부·진보공단 주관

### 전국 3664개 요양기관 대상

‘순천 시립 향림실버빌’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 보험공단 주관의 요양소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A등급)으

로 선정됐다. 지난 2009년 평가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3664개소 장기요양기관 30인실 이상 시설을 갖춘 요양소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6개월간 기관운영 부문, 환경 및 안전부문, 권리 및 책임부문, 급여제공 과정부문, 급여제

공 결과부문 등 98개 항목에 걸쳐 실시됐다.

순천 향림실버빌은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쾌적한 요양서비스를 제공, 시립 노인 요양시설의 가치를 입증했다.

은광석 시설장은 “A등급 수상은 노인

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직원들의 땀방울과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해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노인들을 내 부모님처럼 사랑의 손길로 모시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예정열기자 jiyi@

## 남원 파프리카 작목반 최우수단지 선정

남원시 춘향골 파프리카 작목반이 원예전문 생산단지(농림수산식품부 지정 수출단지)에 대한 운영실태와 시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단지로 선정돼 올해 표준물류비의 10%를 인센티브로 지원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주관한 이번 종합 평가는 작목반의 내실있는 운영과 안정적 수출체계를 구

축하기 위해 전국 16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남원 고랭지는 파프리카 생산의 최적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2001년부터 재배를 시작,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역특화 품목으로 지정받았으며 현재 42 농가 22ha에서 연간 3672t을 생산해 102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TV조선 특별기획드라마

비밀의 게임

격동의 시대를 살아야했던 이들의 사랑과 야망!

기획 TV조선 제작 강호 프로덕션 크리에이터 정성희 극본 이한호 연출 김상래

최수종 손태영 류진 최철호 이인혜 독고영재 정호빈 4월 25일부터 매주 금·토 밤 11시 방송

박상면 홍일권 김진근 이종수 공정한 이정용 최규한 이기찬 현석 김민경 전수경 이철민 고명환 정명환 이영후 이원석 조영서 김권 김예원 윤홍빈 김현준